Since 1969 광주·전남 대표은행
광주은행
행복 금융 실현합니다~

광전매일신문

유디철강(주) 철근공장 기계가공
철근 · 철강재 도 · 소매
유디기업(주) 장애인 편의시설 설계 및 시공
BF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설계
대표이사 신 현 종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8번로 14-9(연산동 1280)
TEL : 062-942-7577 FAX : 062-942-7576
MOBILE : 010-2645-5325 E-MAIL : ud7577@naver.com

대표전화 062-525-9775 gjnews.kr FAX : 062-528-4566 2025년 12월 1일 월요일

“호남 관문 맞나” 낙후된 광주송정역 일대 정비 추진

광주 광산구가 낙후된 광주송정역 일대를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광주송정역 일대 전경.

광장 리모델링→여인숙 철거→광장 확장 단계별 추진

사업비 1500억 육박 ‘국비 확보 관건’…국가사업 건의

“환승 기능 머물러선 안돼…광주 첫인상 다시 세울것”

광주 광산구가 ‘호남의 관문’이라 불리기 무색하게 낙후된 광주송정역 일대를 재정비한다. 송정역 확장 공사와 발맞춰 역 광장을 정원과 조형물이 있는 공공 공간으로 탈바꿈, 주변 노후 여인숙 건물들을 철거해 광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광산구는 ‘광주송정역세권 경제·문화 복합허브 조성’ 계획을 수립해 단계별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광산구는 국가철도공단이 역사 면적을 5700㎡에서 1만1000㎡로 늘리고, 낡은 대합실·승강장·편의시설을 개선하는 송정역 확장 공사 일정에 맞춰 역 광장 리모델링에 들어간다.

구비 10억5000만원을 투입해 송정역 광장을 리모델링한다. 면적 3600㎡ 규모의 역 광장에 쉼터와 힐링정원, 조형물, 무대시설 등을 설치한다. 확장 공사는 2028년 9월 완공이 목표다. 광장 바닥 지열설비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 리모델링 공사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산구는 2022년 12월부터 국토교통부에 확장 공사 시 역 광장을 함께 개선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역 광장은 개선이 필요한 노후 시설에서 제외되자, 구비를 투입해 직접 역 광장을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고속열차(KTX) 등을 이용해 광주를 찾는 방문객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낡은 여관·여인숙 등 낙후된 주변 환경 개선에 나선다.

송정역에서 광주공항 방향 면적 8400㎡ 구간 밀집해 있는 오래된 여관·여인숙 등 낡은 건물들을 철거, 해당 공간에 광장을 조성하는 등 역 광장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여관·여인숙 토지보상비를 비롯해 공사비와 설계비만 740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건물·영업권 보상비 등을 더하면 총 사업비는 1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광산구는 해당 사업을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하면, 경제성이 부족해 사업 실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국립문화시설 유치나 달빛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반영 등 국비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역 광장 확장이 국가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게 정부와 정치권에 적극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광산구 2040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에 해당 내용을 포함, 국가사업 제안서를 준비하고 있다.

광주송정역은 ‘호남의 관문’이라 불리지만 타 광역권 거점역 대비 협소하고, 주변 지역이 낙후돼 지역적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실제 송정역 연면적은 동대구역(2만6794㎡)의 5분의 1, 부산역(5만4920㎡)에 비해서는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광장 면적도 동대구역(2만5638㎡)이 7.1배, 부산역(1만6662㎡)이 4.6배 더 크다. 편의·부대시설 역시 동대구역 47개, 부산역 52개인 반면 송정역은 6개뿐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호남의 관문이지만 주변 환경 때문에 광주에 대한 첫인상이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며 “단순 ‘환승 기능’에만 머물러 있는 송정역을 광주의 새로운 가치를 발산하는 공간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정역세권은 달빛철도 건설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등 대규모 도시개발도 예정돼 있다. 경제문화 복합허브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준행 기자

“에너지 식민지 거부한다”…광주·전남 송전탑 반대 대책위 출범

용인 반도체 산단 10GW 전력 공급용 초고압 송전선로 반대

광주·전남지역 20여개 ·단체 연대…한전에 항의서한 전달도

광주·전남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 지역 20여개 조직이 참여한 ‘송변전선로 반대 광주전남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지방이 희생되는 구조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대책위는 또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전력 공급용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이 환경파괴, 전자파 피해, 재산권 침해 등 모든 피해를 지방이 떠안는 ‘에너지 식민지’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지난달 29일 대책위에 따르면, 전날 출범식에는 광주·전남 각 시·군 대책위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 정의당·진보당 지역위원회 등 약 30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선언문 낭독과 지역 발언, 상여 퍼포먼스를 진행한 뒤 한전 본사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업무 담당자와의 면담을 진행했다.

대책위는 용인 반도체 산단 10GW(기가와트)급 전력 공급을 위한 345㎸(킬로볼트) 송전선로가 영암·곡성·장성·화순·영광·광주 본량 등지를 관통하는 것에 대해, 전력 혜택은 수도권이 누리지만 환경·경관 훼손, 전자파, 재산권 침해 등 모든 피해는 지방이 떠안는 구조라고 규탄했다.

또 전국 99개 송변전선로 사업이 ‘국가기간망’으로 지정되면서 인허가 절차와 주민 참여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용인 반도체 산단 추진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기간 단축으로 사업이 진행된 점은 ‘날치기 행정’으로 규정하며, 연간 1000만 t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할 가능성이 있어 기후정책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대책위는 “송전탑 폭주를 멈출 때까지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며 향후 장기 투쟁을 예고했다.

이번 갈등은 전력 수급, 기후 정책, 지역 균형발전 논쟁이 복합됐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송전망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기동취재부

광주도시철도 2단계 7·10공구 3월 재입찰

사업비 500억 증액·공법 변경…정부 협상 마무리 단계

수완지구 정거장, 도심 밀집 공사 불가…노선변경 검토

광주시가 업체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7공구·10공구 구간 공사를 위해 사업비를 500억 원 증액하고 수의계약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에 따르면 ‘공사 어려움·민원 예상·사업비가 낮다’는 등의 이유로 5차례 유찰된 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7공구(전남대 후문)·10공구(본촌산단) 공사구간 업체 선정을 위해 공법을 ‘저심도 개척’에서 ‘터널’ 방식으로 설계 변경하고 내년 3월께 6번째 공개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비도 7공구는 기존 1516억원에서 1710억원으로, 10공구는 1140억원에서 1420억원으로 증액했다.

공법은 도로 곳곳을 통제하고 지하를 뚫어 선로 등을 설치하는 ‘저심도 개척’에서 지하에서 굴착을 지속하는 ‘터널’ 방식으로 설계변경했으며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상도 마무리 단계이다.

국토부와 기재부가 공법변경과 터널 방식을 승인하면 내년 3월께 6번째 공사업체 선정 입찰을 진행하고 2개 이상의 업체가 응모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7차 입찰까지 진행한 뒤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는 국내에서 지하철 시공이 가능한 업체 10여 곳을 찾아다니며 변경된 공법과 사업비 등을 제시하며 입찰 참여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7공구는 전남대후문에서 오치동 육교까지 2.493㎞(3개 정류장)이다. 10공구는 본촌동 오비맥주공장부터 양산지구 사거리(1.808㎞)까지이다.

이 구간은 광주 최대 교통혼잡 지역으로 기존의 공법에 따라 도로 곳곳을 통제하고 공사를 강행할 경우 다수의 민원과 통행불편, 상가 불만이 예상되며 지하에 통신선로 하수도 등이 거미줄 처럼 얽혀 있어 업체들이 참여를 꺼려했다.

또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도심 고층건물과 교통시설물 밀집으로 인해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13공구 수완지구(235정거장) 구간도 노선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국내의 지하철 공사가 가능한 업체를 상대로 설명회 등을 통해 입찰 참여를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사전협상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입찰을 진행해 업체를 선정한 뒤 상반기에는 착공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권철 기자

지 면 안 내

▶ 전남도지사 선거전 판 커지나…“조기 점화 양상” 3면
▶ 3년 만에 광주 도심 퀴어축제…우려했던 충돌 없이 끝나 9면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 약품을 쓰지 않은 장어만 판매

Self 참숯구이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영광 법성포 청산양만 명품 장어

無항생제
無균
無소독제!

1일 18회 순환여과 및 미생물 배양 청정시스템으로 국내산 청정 명품장어

HACCP (위해요소관리우수) 해양수산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지정업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 제 AQ-0026

무항생제 (NON ANTIBIOTIC) 해양수산부
인증기관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 제15-18-0001호

전국 500여 양만장중 무항생제 지정업소 단 1곳
전국 500여 양만장중 HACCP 지정업소 단 3곳

예약문의 T. 062)233-9592
광주 동구 내남동 330-3(월남지구 호반2차 옆 솔바우주유소 옆)

저희 장어명가 청산 장어는 국내유일
무항생제 인증과 해썹(Haccp)으로 인증된 양어장에서
"무항생제, 무균, 무소독제"로 직접키운 명품장어입니다.
무항생제 장어 최고 품질!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에서 모시겠습니다.